

저작권에이전시, 무슨 일을 하나

정보서비스 등 아직 계몽단계...출판계에 '저작권감각' 시급

새 저작권법 발효에 따른 저작권의 대리, 중개, 위탁관리 업무를 담당할 저작권에이전시 13개 업체가 지난달 8일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출판저널」 제12호 42면 참조)

그러나,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가 아직은 널리 일반화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 출판계에서조차도 이들 13개 저작권에이전시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편이다. 저작권에이전시의 적절한 이용이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 출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하나의 훌륭한 방편일 수 있음에 비추어, 이같은 이해 부족은 사실 기이할 정도다.

말하자면, 저작권과 저작권에이전시에 관한 한 우리 출판계는 이제 겨우 계몽주의 시대의 초입에 들어서 있을 뿐이다. 이는 물론, 시기적으로 보아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출판사나 에이전시의 양측이 모두 경험과 전례를 축적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아닌 '서비스' 단계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증을 교부받은 13개 업체 중 현재 본격적인 에이전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수요가 많지 않은 까닭도 크겠지만, 몇개 업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商談을 중개한다거나 뚜렷한 실적을 올린다거나 하는 일과는 무관한 상태다. 모 에이전시 대표의 솔직한 표현을 빌자면 '팩시밀리 한대 들여놓고 꿈만 꾸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은, 새 저작권법 발효 이전부터 이미 저작권 중개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이번에 새로 허가업체가 된 곳들을 들 수 있다.

문공부 허가업체 제1호로서 현재 대략 10여건의 단행본 학술서적의 저작권 중개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IPS(대표 민영빈)의 경우는 주로 번역권의 수입, 중개에 치중하고 있다. 새 저작권법 발효에 따라 번역의 시대는 갔다는 일반의 성급한 판단과는 달리, 이제야 말로 책임있고 진정한 번역문화의 꽃을 피울 때라는 것이 IPS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출판계의 이해부족과 그에 따른 미미한 반응, 그리고 팩시밀리 등을 비롯한 통신비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 수입으로 인해 아직 '비즈니스'의 수준에는 이르러 있지 못하다.



해외신간정보를 알리는 각종 팸플릿. 대부분의 에이전시들이 자료로 비치, 국내 출판인들에게 열람을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은 비즈니스보다는 '서비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리라는 것이 IPS측의 전망인데, 이 회사 객소진고문은 국내 출판업자들이 로얄티를 '독점권에 대한 아주 싼 보험료'로 여길 수 있는 인식이 아쉽다고 말한다.

1986년부터 저작권 관계업무를 다루온 인터코저작권기획(대표 정동운)의 경우도 IPS와 대동소이하다. 몇몇 서적의 번역권 및 리프린트권의 중개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로서의 상업적 수지타산을 바라기는 요원하다는 것이 인터코 崔相樞씨의 말이다. 우선 건수 자체가 극히 적고, 그나마도 복잡한 절차 탓에 일을 성사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전한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출판계의 '악명'이 외국의 출판사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출판계의 '국제감각'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최상준씨는 저작권 에이전시를 출판사들이 '자기회사의 기획실'처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

기획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출판복덕방'

信元에이전시(대표 김상형)의 경우는 사전과 전집물 등 비교적 덩지가 큰 출판물의 저작권 중개업무를 다루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저명출판사 40여군데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올 서울올림픽 이전 출간을 목표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미술전집을 공동 출판하는 기획도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출판계에 있어 '저작권감각'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신원의 김상형사장은 특히 그 안정성을 들어 에이전시의 활동영역이 확

저작권에이전시의 활동이

본격화되기에는 현재의 우리 여건상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몇개 업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비즈니스'로보다는 '구체적인 중개업무의 개시에 앞서 '서비스'의 차원에 머물러 있고, 각종 해외출판정보의 수집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대야 한다고 말한다. 즉, 저작권의 수입은, 국내의 일부 대형출판사의 예에서 보는 것 같은 외국출판사와의 일대일 계약, 볼로냐나 프랑크푸르트 등의 북페어를 통한 계약, 그리고 에이전시를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중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계약절차 및 방법상의 숙련도, 문제발생시의 중재 능력 등에서 에이전시를 통한 계약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밖의 에이전시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아직 이렇다 내세울만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출판사로부터의 중개의뢰도 적고, 또 본격적으로 중개업무에 나서기보다는 주로 선택을 위해 필요한 각종 해외출판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다.

문학사상사(대표 임영빈)는 현재 번역의 대상상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2~3개월 정도가 지나야 정상화되리라는 게 임중빈사장의 전망인데, 自社の 미주특파원과 프랑스문화원을 통해 미국 및 프랑스의 신간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첨단정보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취지 아래 영문사(대표 박병조)는 이

공계통의 기술서적과 대학교재의 번역권 중개를 주로 취급할 예정이며, 학술전문잡지의 발체번역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출판정보사(대표 최명호)의 경우도 주로 일본쪽의 출판물을 대상으로 기술서적과 전문잡지의 번역권 중개에 치중할 예정이다.

반면, 연합출판진흥(대표 이선배)은 인문 및 기술분야의 대학교재 복제권 수입에 치중하고 있다. 1983년부터 이미 복제권 수입업무를 다루어 왔고, 현재 미국, 영국 등 세계 각지의 13개 에이전시와 특약을 맺고 있다.

한국에이제이전시(대표 김승환)는 번역권이나 복제권의 수입보다는 주로 일본 등지에 한국학관계도서의 저작권을 수출하는 데 주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체성있는 출판복덕방을 지향한다"는 김승환사장은 또 한·중·일 3국의 공동출자 및 공동편집으로 동양미술을 집대성한 미술전집의 동시출판도 계획하고 있다. 그밖에 (주) 월포(대표 정광남)의 경우는 사진 등을 비롯한 각종 시청각 자료의 중개업무를, 그리고 현대정보사(대표 이석호)에서는 아동물전집의 번역권 수입업무에 치중할 예정이다.

정부당국의 정책적 배려 아쉬워

위에서 보듯 이제 겨우 걸음마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저작권에이전시들의 활동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에이전시 자신의 노력 못지 않게 무엇보다도 국내출판계의 저작권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저작권제도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때, 출판사에 반드시 부담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은 일종의 '신사협정'이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당국의 저작권에이전시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현재 등록이 아니라 허가제로 운용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데 대해 아쉬워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세계 각국과의 조속한 조세협정 체결문제를 비롯해, 로얄티 송금에 따른 한국은행의 송출허가 문제, 그리고 상용여권의 발급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주무당국이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강철주 기자